

다가온 마늘 수확철...인력 확보 총력전

제주농협, 일손 돕기 신청 접수...도내 기관·단체기업에 협조 요청

제주농협이 마늘 수확철 인력 확보에 팔을 걷었다.

제주농협(본부장 윤재춘)은 농촌 일손이 부족한 5월 영농철을 대비해 '국민과 함께하는 마늘수확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5월은 도내 마늘 재배 농가 모두가 수확하는 시기로 수확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으로

조사한 마늘 재배 면적은 1088ha로 마늘 수확이 익숙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달 간 근로자 3만 3000여 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농협은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농가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마늘 수확 봉사에 함께할 인력을 모집한다.

제주농협은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일손 돕기 자원봉사 신청을

받으며 마늘 수확 봉사자들의 단체 이동과 점심 식사를 지원한다. 또 장갑 등 마늘 수확에 필요한 용품과 안전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농협은 이와 맞물려 봉사자 500명 모집을 목표로 도내 주요 기관·단체기업 200여 곳에 농촌 일손 돕기 참여 협조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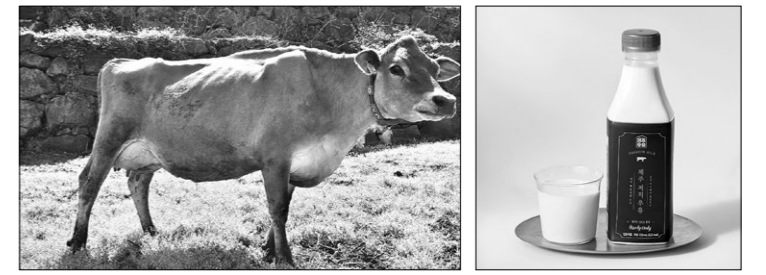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5월 한 달 동안 도내 군부대 장병을 비롯해 제주농협 임직원 및 농업인 단체 등 도내 여러 기관·단체·기업 임직원 4300여 명

이 마늘 수확에 힘을 보태 취약 농가가 힘을 얻었다.

이규식 제주농협 농촌지원단장은 "지금 농촌에서는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가격 부담은 물론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가고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며 "제주농업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농업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영 왕실 우유 '저지우유' 이제 제주에서도 생산한다



저지종 젖소(왼쪽)와 제주 저지우유.

영국 왕실 우유로 알려진 '저지우유'를 제주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제주우유(대표 김정옥, 다인목장 공동 운영)와 함께 도내 저지종(Jersey) 젖소에서 생산된 '제주 저지우유'의 개발을 마치고 본격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지종은 기본 털색이 갈색으로 영국 왕실 전용 우유를 만들기 위해 영국 해협의 저지 섬에서 자란 소 품종이다.

저지종 우유는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홀스타인종(Holstein)에 비해 우유 생산량이 적지만 유지방, 유단백 함량이 높고 체내 소화·흡수가 좋은 성분 비율이 높고 고급 프리미엄 우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탄소중립형 축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저지종 암소 사육 확대를 위해 저지종 우유를 분리 집유하고 유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 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란 및 정액을 공급 지원하는 '젖소 품종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제주우유는 현재 저지소 110여 두를 사육해 하루에 0.7t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50여 두·1t까지 확대하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버터 등 신제품을 개발해 다양한 저지 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변화하는 소비자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청정 낙농 원유를 활용한 다양한 유제품 개발 지원과 도내의 틈새시장 공략으로 축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청정 제주 식품 한 자리에 한·중·일 맥주도 맛보세요

제주도 식품대전 19~21일 개최

제주지역의 청정 식품산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축제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제주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내 맥주기업의 홍보·판매 및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이하 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ICC제주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전시판매관과 6차산업 홍보

관, 사회적경제기업관, 제주 물흥보관 등 다양한 테마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는 총 100개 업체가 참여해 120개 부스를 통해 1차상품, 가공식품, 베이커리, 디저트 등 제주 식품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와 중국, 일본의 유명 맥주 37종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축제는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 각지에 소개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축제가 제주지역 우수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홍해삼·전복·오분자기 종자 방류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소득 증대와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방류하는 수산종자는 ▲홍

해삼 102만 마리 ▲전복 64만 마리 ▲오분자기 32만 마리 등 총 198만 마리다.

제주도는 예산 21억원을 투입해 4~6월 및 10~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산 종자를 방류할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중동 사태'에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인 바 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연합뉴스>

"제주형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는 제주형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센터는 이번 모집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해외기업 등과 스타트업 매칭이 성사되면 평균 500만원의 협업 자금과 입주 공간, 위케이션 활용이 가능한 바우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센터는 지난해 대·중견기업-스타트업을 매칭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카카오-브이피피랩 ▲교보생명-셀러리파이 ▲하나은행-창톡 ▲홈앤쇼핑-카카오페이 등 4개 팀의 협업을 이끌어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흑돼지 ·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제주영롱가

영농조합법인

각종 모임환영 | 단체석 완비

대형 주차시설 완비

제주영롱가공은 농림부지정 HACCP인증 가공공장으로 제주영롱가에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청정제주 고기의 맛을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맞은편 영광아파트 입구

예약문의 064.751.8892



흑돼지 ·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

본점

제주시 인다15길 16 (아라1동)

TEL. 751.8892



제주영롱가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간월동로 40(아라2동)

TEL.(064)753-6693 / 757-6200, FAX.(064)755-8549